

택시만 하루 1000대 소독... 30kg 장비 메고 방역 구슬땀

코로나19 민간방역업체 광주 방역작업 동행취재 해보니

직원 14명 살균·멸균팀 나눠 버스·구급차 등 구석구석 방역
밤낮 잇은 채 24시간 방역 총력...방호복 수급 부족 하소연도

“위잉, 위잉”. 민간방역업체 ‘KSC 한국멸균센터’ 직원들이 분사 소독 스위치를 올리자 모터소리가 나며 소독약이 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장등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던 18번 버스 안은 순식간에 피어 오르는 소독제로 뿌려지게 되었다.

방역업체 직원들은 이날 3시간 넘게 차고지와 버스기사 휴게실, 식당, 버스 등을 돌면서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버스기사들이 매일 4~5차례 손잡이·버스카드 리더기 등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어 전문업체까지 나서서 감염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소독은) 일시적인데, 소독을 했으니 바이러스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방역 직원들은 2ℓ의 소독약이 들어있는 통을 메고 5kg짜리 총(flugun)을 든 채 움직이면서 버스 곳곳의 의자와 손잡이, 버스 계단, 광고간판 등을 향해 고르게 뿌렸다. 소독약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비말감

염 포인트인 사람 키 높이 수준을 향해 집중적으로 소독약을 살포하고, 바이러스가 붙어있을 만한 구석 구석에 총을 갖다 댔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방호복을 입은데다 한 곳이라도 살균제가 빠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20분도 못돼 얼굴과 손, 등이 땀으로 범벅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요즘 방역업체들은 숨 돌릴 틈이 없다. 광주·전남에서만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됐던 지역민들만 여태껏 1252명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276명이 자가격리된 상태다. 이들이 거쳐갔거나 머물렀던 데는 모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대상이다.

광주시와 일선 보건소 인력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안되는 민간 전문 방역업체가 바빠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멸균센터 직원은 “요즘엔 새벽에도 연락이 온다”면서 “지난 7일에는 밤 9시가 넘었는데 출동해 멸균 소독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직원 14명이 2인 1조로 살균·



한국멸균센터 직원들이 지난 7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18번 시내버스 내부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멸균팀으로 나눠, 광주시 의뢰를 받아 24시간 방역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광주공항공과 본촌·양산·신가·세하동에 있는 광주지역 5개 LPG가스 충전소에서 매일 들어오는 택시들을 상대로 ‘살균작업’을 진행하는 게 이들의 주 업무다.

이들이 소독하는 택시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1000대가 넘는다.

한 대당 1분 남짓이지만 택시가 언제 들

어올지 몰라 방호복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하는 탓에 땀으로 젖기 일쑤다. 하지만 방호복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일회용인 방호복을 편하게 갈아입을 수도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겨울 날씨에는 땀이 금방 식어 추울 때도 있지만 방호복 위로 외투를 입을 수도 없다.

낮 시간만 소독하는 게 아니다. 보건소나 소방서가 확진자나 의심자를 이송한 뒤 소독 요청을 할 경우엔 ‘멸균 작업’도 병행



한국멸균센터 직원들이 7일 밤 의심환자를 이송한 서부소방서 구급차량 내부 시설을 멸균티슈로 닦고 있다. <방역업체 제공>

해야 해 밤샘 대기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태운 구급 차량의 경우 멸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급대원도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업체 센터장 김대현(50)씨는 “자칫 1분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다른 구급환자들에게 달려갈 구급대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항상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멸균 작업은 소방차 내부 모든 물건을 80% 알콜이 포함된 멸균티슈로 일일이 닦아내야

하는 만큼 소독 시간만 1시간 가까이 걸린다. 3kg 무게의 양압호흡기(PAPR)를 몸에 뒤집어쓰고 30kg나 되는 멸균 장비인 ‘씨페이스’(surface)를 들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녹초가 될 정도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감염병이 지역 사회에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에...전남 농어촌 일손 확보 비상

완도·고흥 등 농번기 발동동
농사 포기도 심각하게 고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남 지역 농·어촌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부족한 일손을 메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을 포기하는가 하면, 입국을 미루고 있어서다. <광주일보 2월 12일 6면> 특히 연중 수확이 가능한 고추농가의 경우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민들이 농사 포기를 고민하는 등 농·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8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에 따라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이 입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흥의 경우 올해 3월 입국기로 했던 필리핀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이 입국을 포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면서 감염을 우려, 한국 입국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20년 전남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추진 현황 (단위:명)

시군	신청	배정	추진 현황
완도	95	95	잠정 보류
고흥	51	50	9명 입국 포기
장흥	50	50	잠정 보류
나주	13	13	잠정 보류
보성	8	8	잠정 보류
해남	82	미배정	

(법무부·전남도 제공)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16일 1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6일로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장흥·나주·보성·완도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배 따기와 봉지 씌우기 등 인력을 구하지 못해 베트남·중국·태국 등에서 1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기로 했던 나주 농가들도 이들 입국을 다음달로 미뤘다. 장흥도 5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흥군은 애초 농민들 수요조사를 거쳐 4월 23명, 6월 6명, 9월 14명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우려를 들어 잠정 보류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제때 일손을 구하기 힘든 고추 농가에서는 아예 올해 농사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성에서는 8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을 딸기·축산 농가 등에 투입하려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 출국 제한 정책으로 관련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9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청했던 완도는 초비상이다. 당장, 4~7월 다시마 수확기를 앞두고 인력 확보가 절실하지만 입국 제한 절차에 발이 묶여 해당 나라를 방문, 계절근로자 투입을 위한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인력 수급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완도 일대에서 머무르고 있던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탈(脫) 한국’ 행렬까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인력난도 우려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완도지역에는 불법체류자 등이 현장에 많이 투입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가 더 확산돼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이 연기되고 불법체류자까지 완도를 떠날 경우 인력 수급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완도(95명), 고흥(50명), 장흥(50명), 나주(13명), 보성(8명) 등이 법무부 결정에 따라 올 상반기 총 2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데려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투입,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예정이었다. 해남의 경우 올해 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부실한 인력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코로나19 공문·개인정보 유출 전남 공무원 잇따라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안군 공무원 A(55)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 7명을 검거했으며 13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시민의 인적사항과 동선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군 공무원 B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23일 특정 업소 건물을 가리켜 신천지 교당이며 출입자들은 신천지 신도라고 허위 정보를 작성한 C씨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허위 정보를 작성해 SNS 단체방에 최초 유포한 C씨와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D씨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절도범 코로나19 의심증상 호소에...경찰서 한때 임시 폐쇄

○...경찰에 붙잡힌 20대 절도범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 경찰서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한바탕 소동.

○...8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A(20)씨는 동료 한명과 함께 교회와 식당 등 7곳의 종교시설 헌금함에서 총 38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검거됐는데, 하필이면 A씨가 유치장 입감도중 37.5도의 열이 측정된데다, “최근 여자친구를 만나러 대구를 다녀왔다. 전남 고열 증세로 수액을 맞고 괜찮아

졌다”고 주장해 A씨와 접촉한 경찰 18명이 격리되고 경찰서가 한동안 임시 폐쇄됐다.

○...경찰은 A씨가 존재하지 않는 광주발 대구행 KTX기차를 언급한 점과 공범이 “A씨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대구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A씨 말을 의심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폐쇄 조치를 했고, 이후 A씨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자 4시간여 만에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